

# “한도 줄기 전에 집 사자”... 지난달 은행 주담대 8.2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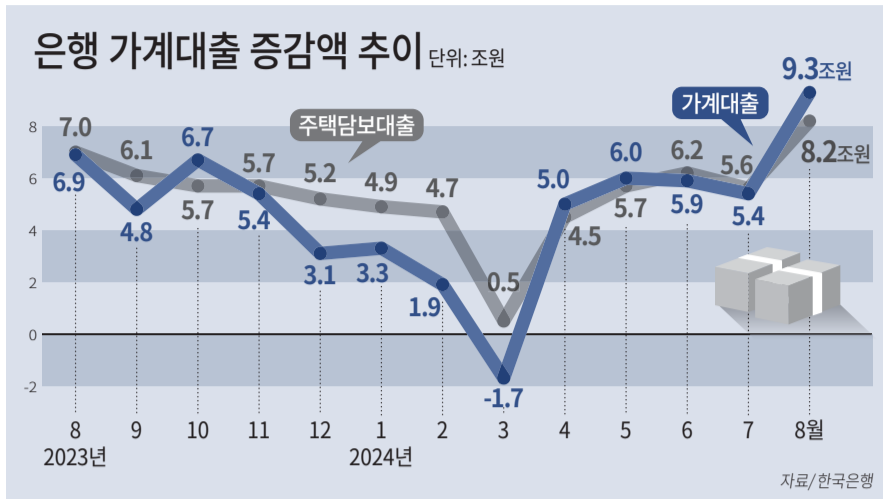
한은, 올해 8월 금융시장동향  
가계대출 9.3조 급증, 주담대 88%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증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 한달간 5조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에서 ▲8월 9조3000억원까지 불었다. 지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 주담대, 가계대출 증가규모 88% 차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주담대 잔액은 890조 6000억원으로 한달 새 8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88%를 주담대가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3만 9000호→6월 4만3000호→7월 4만8000호로 늘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1만8000호→6월 2만 3000호→7월 2만7000호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6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지면서 주담대가 증가했다”며 “9월

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전 선수요가 발생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3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은 6월 3000억원, 7월 1000억원 감소한 뒤 8월 1조1000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여름휴가철과 지난 달 주가가 떨어지며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비중이 늘며 기타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박 차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정부정책과 은행들의 관리노력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기타대출도 줄어들며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대출, 중소기업 중심 7.2조원 ↑  
가계대출 만큼이나 기업대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월말 기준 1311조9000억원으로 한달새 7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한 기업대출 규모는 6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8월(56조6000억원)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275조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조9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36조9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대기업대출의 증가세는 둔화하는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또한 시설자금 수요가 확대되며 기업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증가한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 부실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0.58%로 1년전(0.43%)과 비교해 0.15%포인트(p) 높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

당정, 불법 사금융 대책 협의회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 벌금 2억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

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

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이 확정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5가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

고, 불법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에 대한 국민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처벌·예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당정은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강요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

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 및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예진 기자 syj@

>> 1면 ‘그레미상도 넘보는 AI...’서 계속

## “저작권 윤리 문제 대두”

해의 빅테크들도 AI 음원 제작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올해 초 AI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뮤직 FX’ 출시했고, 메타도 최근 음향 효과와 음악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오디오 크래프트’를 선보였다.

그러나 AI창작음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기술이 예술가들의 창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무제한 경기여행!**  
**경기투어패스**  
경기도 인기 관광지, 체험, 액티비티,  
카페 150여 곳 이용가능!!  
24/48/72시간 선택하여 자유롭게 즐기자!

본공이(1234) >  
투어패스 여행지를 검색하세요.  
공지 성인/청소년/소인 권종에 맞게 이용바랍니다....  
사용가능한 남은시간을 확인해주세요.  
**48:00:00**  
경기투어패스  
[경기투어패스] 경기투어패스 통합권 / 경기투어패스 48시간  
2917-1019-0219-8543  
성인1/청소년2/소인1  
누적액 12,552원  
누적이용사실 12  
이용가능한 여행지 한눈에보기  
여행